

2017년 2월 7일

투자전략 Daily

- 파생/ETF 전략

2월 만기: Just slow, Not reverse

- 중화권 증시 동향

정책 기대감에 중국 증시 주간 강세 출발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버다임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청담러닝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 분석

미디어 · 광고, 인터넷, 헬스케어, 이마트, CJ헬로비전, SK텔레콤,
원익IPS, 한국타이어, 녹십자, SK이노베이션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31(화)	2/1(수)	2/2(목)	2/3(금)	2/6(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67.57	2,080.48	2,071.01	2,073.16	2,077.66
	등락폭		-16.02	12.91	-9.47	2.15	4.5
	등락종목	상승(상한)	370(0)	597(6)	229(0)	338(0)	440(5)
		하락(하한)	447(0)	200(0)	596(4)	479(2)	370(0)
	ADR		85.40	90.78	85.10	82.14	80.69
	이격도	10 일	99.91	100.45	100.00	100.09	100.28
		20 일	100.28	100.78	100.25	100.29	100.42
	투자심리		50	60	50	60	60
	거래량	(백만 주)	288	453	825	393	313
코스닥	거래대금	(십억 원)	4,596	4,532	5,707	4,913	3,827
	코스닥지수		616.13	623.68	613.04	609.21	610.96
	등락폭		-0.68	7.55	-10.64	-3.83	1.75
	등락종목	상승(상한)	535(2)	796(1)	233(1)	384(2)	602(1)
		하락(하한)	573(0)	306(0)	891(9)	720(5)	504(0)
	ADR		95.71	96.97	95.42	94.94	95.33
	이격도	10 일	99.40	100.68	99.14	98.81	99.33
		20 일	97.97	99.24	97.73	97.36	97.88
	투자심리		20	30	30	20	30
	거래량	(백만 주)	727	938	1268	1218	647
	거래대금	(십억 원)	2,484	2,519	3,234	3,201	2,55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666.1	1,220.5	866.4	311.9	75.3	175.3	105.1	15.2	183.8	77.5
	매도	1,778.6	1,218.0	804.3	267.2	77.0	174.4	107.4	12.0	166.3	29.7
	순매수	-112.5	2.5	62.2	44.6	-1.7	0.9	-2.3	3.1	17.5	47.8
	2월 누계	-27.5	-47.7	-120.9	177.2	0.5	-94.0	-106.0	7.8	-106.4	196.2
	17년 누계	-12.2	1,591.8	-2,085.3	-167.2	-96.6	-983.7	-529.2	-27.7	-281.1	505.8
코스닥	매수	2,300.7	170.4	85.9	27.2	6.0	20.8	14.6	2.0	15.3	14.7
	매도	2,304.9	149.7	102.8	24.2	13.5	29.8	16.4	2.2	16.8	14.3
	순매수	-4.2	20.7	-16.9	3.1	-7.5	-9.0	-1.8	-0.2	-1.5	0.4
	2월 누계	36.8	11.5	-52.3	17.7	-19.7	-31.0	-3.6	-0.1	-15.6	4.0
	17년 누계	885.8	-135.6	-667.0	-282.4	-52.8	-171.2	-46.6	-12.1	-101.8	-83.2

2월 만기: Just slow, Not reverse

2017년 Target KOSPI	2,260pt
12MF PER	9.70배
12MF PBR	0.96배
Yield Gap	8.6%p

- ▶ 2월 만기는 다소간 매물부담 경계. 증권의 주식 매수, 선물 매도 누적 많았음
- ▶ EM 주식으로 4주째 자금유입,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
- ▶ 다만 한국 관련 ETF 자금유입은 다소 둔화, 강한 외국인 매수 유입 기대 낮추는 요인

1월 만기 이후 증권
주식매수 많았던 부분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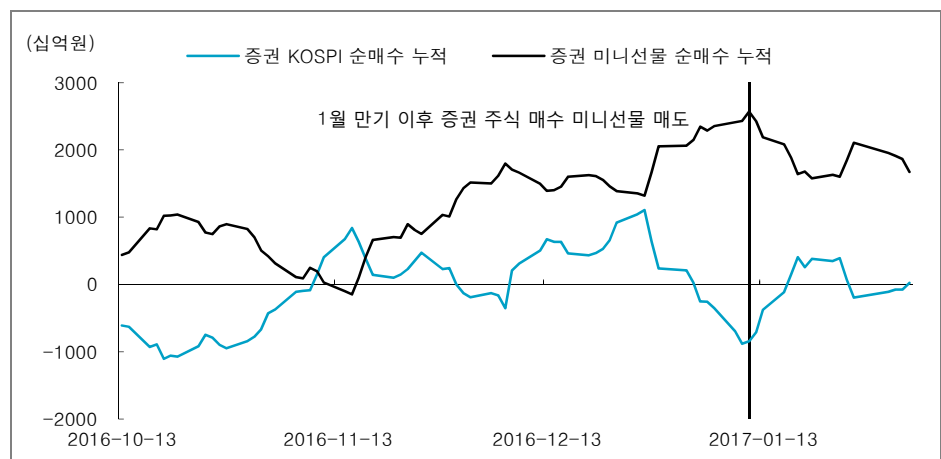
■ 2월 만기: 다소간의 매물 부담 경계

1월 옵션만기 이후 지난 주말까지 프로그램 매매는 -1.1조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했다. 1월 중순 이후 외국인 바스켓 매수가 둔화된 가운데, 지수 상승에 따른 펀드 환매 지속으로 투신 등 국내기관의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이미 프로그램 매도가 많아 만기를 앞둔 매물 부담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1월 만기 이후 증권(금융투자)의 주식 매수, 선물(미니선물) 매도가 꽤 많았다는 점이다. 1/13일부터 2/3일까지 증권의 KOSPI 주식 순매수 금액은 7,323억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미니선물 순매도가 -7,553억원으로, 규모가 비슷했다. 주식 매수+선물 매도의 차익거래 누적이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다[그림 1]. 해당 물량 전부를 만기일에 주식 매도로 청산되는 차익거래 누적으로 볼 순 없지만, 일단 주식 매수, 선물 매도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경계할 필요가 있다.

1월에도 연말 배당 차익거래의 청산으로 증권 주식 매도가 상당히 많았지만,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이 오히려 상승했던 경험도 있다. 이번에는 1월 만기보다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초 이후 EM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 긍정적이지만, 또 다른 지표인 한국 관련 ETF로의 자금유입 강도는 1월 중순 이후 다소 slow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 1] 증권 주식, 미니선물 순매수 누적 추이 (2016년 10월 만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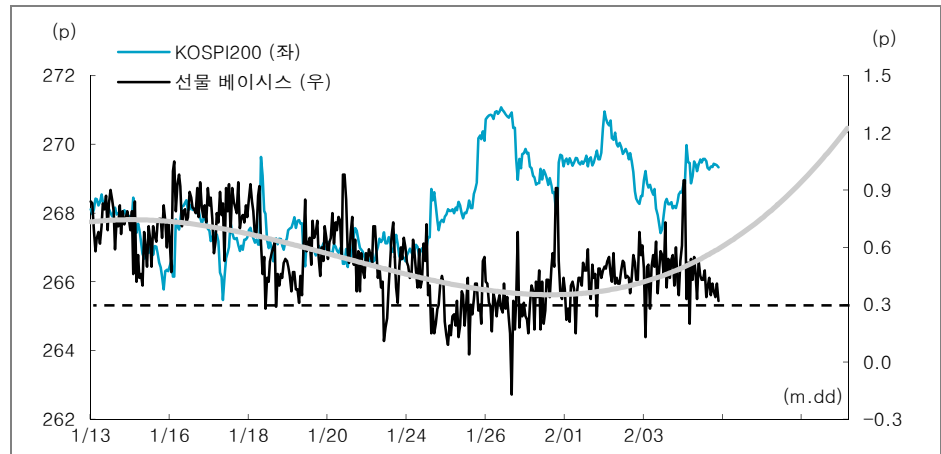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KRX

만기 매물 있더라도
방향전환 요인은 아님

만기 매도가 있더라도 시황과는 관계가 없는 일회성 요인이다. 차익거래의 진입/청산은 시장 방향과 무관하게 현물-선물간 가격차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매수+선물 매도의 차익 거래 누적이 많은 건 한편으로 선물가격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선물시장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의 해석도 가능하다. 만기 매물이 있더라도 시장의 방향전환 요인은 아닌, 속도조절 요인일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2] 1월 만기 이후 선물 베이스 추이 - 베이스는 이론치(+0.3p)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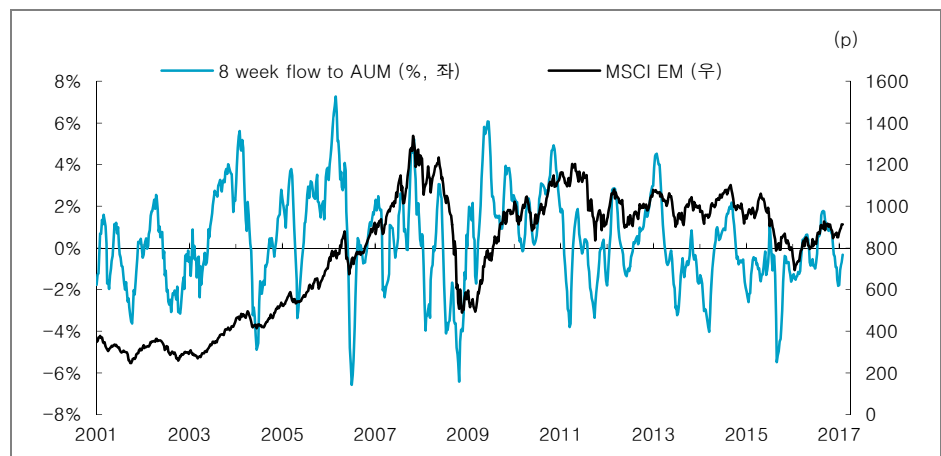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KRX, 장중 15분 추이

■ 외국인 매수와 글로벌 펀드플로우: 한국 관련 ETF 자금유입 강도 둔화

연초 이후 EM 주식으로
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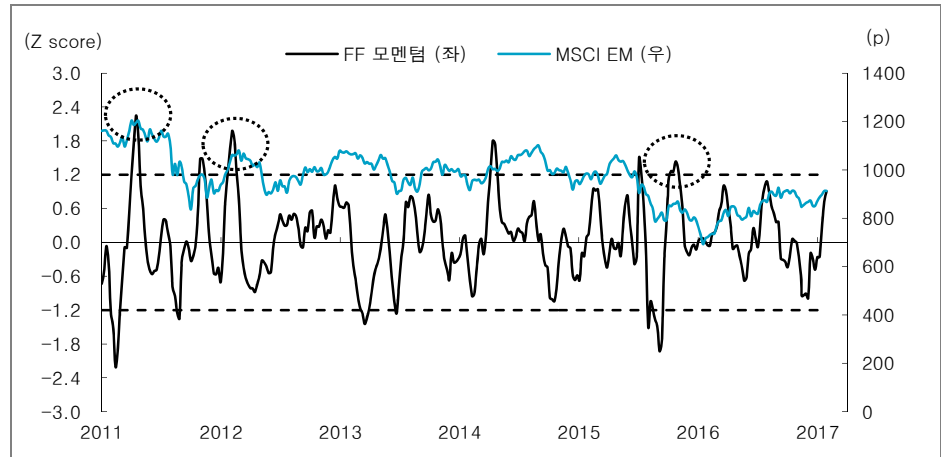
트럼프 당선 이후 작년 11/2일부터 올해 1/4일까지 EM 주식에서는 10주간 -155억 \$의 자금이 빠져나갔다(EPFR). 그러나 1/4일 이후에는 4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30억\$). 지난 주에는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자금이 유입됐다(+14억\$). 이에 따라 8주간 자금유입 강도도 작년 12월말을 바닥으로 개선되고 있고[그림 3], EM 주식 펀드플로우 모멘텀 지표도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다[그림 4].

[그림 3] EM 주식 펀드플로우 - 자금유출 강도 (8주간 flow / 펀드 총자산) 개선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4] EM 주식 펀드플로우 모멘텀: Z score +0.9, 과매수권(+1.2) 근접. Sell 신호는 아직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2/1일 기준

달러 약세는 EM 주식에 긍정적

작년 12월 이후 EM 주식으로의 자금유입 강도 개선은 EM 주가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 주식 상대강도(전세계 주식 대비) 역시 작년 12월말을 기점으로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5].

흥미로운 점은 EM 주식 상대강도가 달러와 거의 반대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 이후 달러 약세가 커머디티나 EM 주식 반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러인덱스는 연초 이후로만 -2.5% 하락했고, EM 주식 상대강도도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영역권(RSI 70 이상, 그림 5 참고)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고용지표 이후 미국 3월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재차 후퇴하면서 단시일 내 달러의 급격한 강세 반전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EM 주식에 나쁘지 않은 요인이다.

주말에 발표된 1월 미국 비농업고용은 227,000명 증가로 예상(+180,000)을 웃돌았지만,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예상을 밑돌면서 선물시장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32%→30%로 소폭 하락했다(Bloomberg). 지난주 있었던 FOMC에서 최근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 금리인상에 대한 신호를 주지 않은 점도 3월 금리인상 기대를 낮춰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그림 5] 전세계(MSCI ACWI) 대비 EM 주식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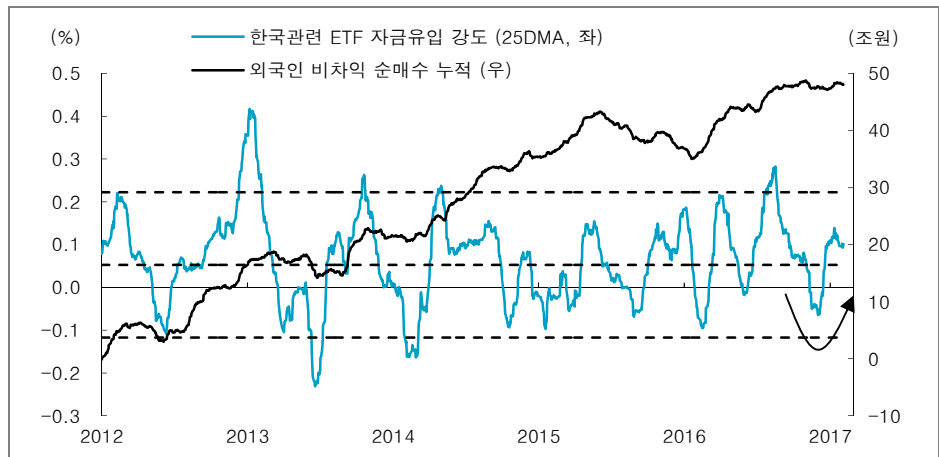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2/1일 기준

한국 관련 ETF 자금유입 둔화는 부담

달러 약세와 EM 주식으로 자금 유입은 국내증시에 긍정적이지만, 한국 관련 ETF로의 자금유입 강도가 slow해지고 있는 점은 외국인 매수, 특히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의 강한 유입 재개에 대한 기대를 아직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관련 ETF로의 자금유입 강도는 작년 11월에 바닥을 찍고 개선되고 있지만, 1월 중순 이후로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1월 만기 이후 외국인 바스켓 매수가 적어진 배경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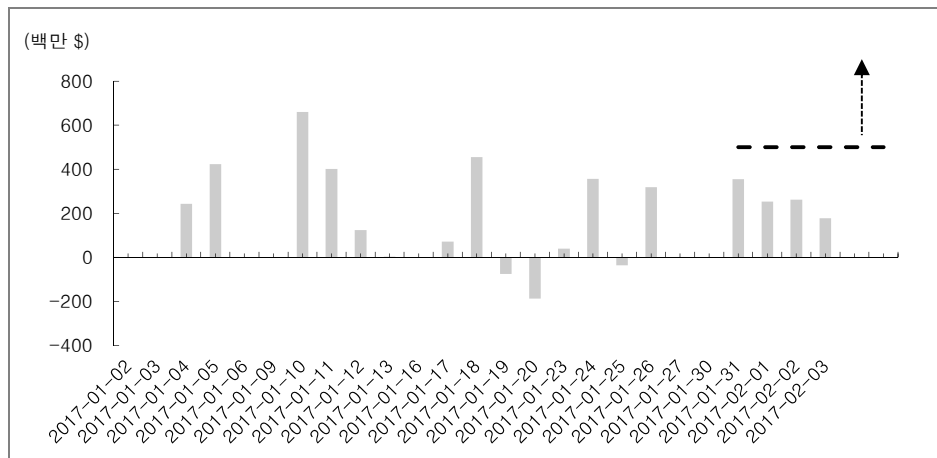
설 연휴 이후에도 IEMG(iShares core MSCI EM)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유입 강도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평균 4~5억\$ 이상의 자금유입이나[그림 7], IEMG 이외 주요 한국 관련 ETF인 EEM(iShares MSCI EM), EWY(iShares MSCI Korea), VEA(Vanguard FTSE DM) 등으로의 자금유입이 필요하다. 주말 고용지표 발표 후 미국증시 상승 상황에서 자금 유입이 강하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ETF 자금유입 강도 개선 여부는 아직 추가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한국 관련 ETF 자금유입 강도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자금유입 강도는 자금유입/ETF 총자산, 25MA. 점선은 과거 평균, ±1 표준편차

[그림 7] 한국 관련 ETF 자금유입 추이 (1월 이후 2/3일까지, 일별)



자료: 한국투자증권, Bloomberg, 한국 투자금액이 많은 상위 50개 ETF 합계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정책 기대감에 중국 증시 주간 강세 출발

- ▶ 상해종합지수는 0.5% 상승, 정책 발표에 환경주와 유가 상승에 에너지주가 지수 강세 견인
- ▶ 홍콩H지수는 1.6% 상승, 미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와 본토 시장금리 상승에 보험주 급등

상해종합지수 0.5% 상승,
농업, 보험, 자동차, 소프트
웨어 등의 업종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5% 상승한 3,157p로 마감했다.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1,501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약 50% 증가했다. 국무원에서 농업 개혁 관련된 ‘1호 문건’ 중에서 녹색 생산을 하겠다고 발표했던 가운데 토지오염 개선 등 환경보호 관련 정책들도 잇따라 발표되면서 환경 보호주들이 급등했다. 직전 거래일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한 것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 주 인민은행의 정책 금리 인상과 재고 비축이 급증한 반면 수요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으면서 원자재시장에서 철강, 비철금속 등의 약세가 이어졌다. 한편 농업 개혁 관련된 ‘1호 문건’이 발표되면서 농업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차스닥 지수는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1.3% 상승하며 1,900p를 상회했다. 외국인들은 후구통과 선강통을 통해 중국A주를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홍콩H지수 1.6% 상승,
보험, 소비재, 헬스케어, 에
너지 등의 업종 강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1.6% 상승한 9,840p로 마감했다.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상승폭이 확대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대감이 부각된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다. 또한 올해 중국의 긴축된 통화정책이 금융주들에 유리하다는 전망에 보험주들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중국인수(2628.HK)가 7.5% 급등했다. 그 외에도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업종들이 동반 상승했다. 반면 시크리컬 업종들은 원자재 시장 약세로 하락했고, 금융주의 상대적 강세 속에 A/H프리미엄은 123p로 하락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2/6 (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156.98	0.54	0.64	0.08	1.72
심천종합	1,927.57	0.93	1.34	-3.05	-2.11
차스닥	1,900.45	1.26	0.70	-3.29	-3.14
홍콩H	9,840.26	1.62	-0.14	2.38	4.74
Shibor 7일물 금리(% , %p)	2.63	-0.76	-2.34	7.66	3.34
Shibor 1개월 금리(% , %p)	3.90	0.32	1.35	14.46	18.06
중국국채 3년물(% , %p)	2.78	0.02	-0.57	-5.78	-3.81
위안/달러 고시환율	6.8606	0.07	0.03	-0.09	-1.10
역내 위안/달러	6.8612	0.09	0.33	0.92	1.22
역외 위안/달러	6.8068	-0.06	0.83	0.63	2.49

주: 6일 오후 6시 31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기관 매수세로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

-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규제 완화와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다우지수가 5거래일 만에 2만선을 회복하고, 나스닥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 2,080P선을 웃돌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외국인과 개인 매도세로 상승폭이 둔화되며 하락반전 하기도 했으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 매수세에 상승세로 전환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을 주도, 610P선을 회복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유통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이마트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요르단 정부와 전기버스 K9 계약을 체결하며 썬텍, 썬코어가 나란히 초강세를 보임. 임상이 종료된 주름개선세포치료제 'TPX-105'의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 소식에 테고사이언스가 급등했으며, 신작 '오르텐시아 사가'가 사전예약 10만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는 가운데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기대감이 더해지며 와이디온라인이 강세를 보임. 또한, 연이은 제품 가격 인상 및 원화 강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뚜기를 비롯한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행정명령 결정과 관련해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감에 증권주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실적 부진 여파로 한국전력, CJ헬로비전 등이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이마트(139480) ▶211,500 (+3.68%)	지난 4분기 실적 호조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0.5%, 54.3%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하는 등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호조에 신고가 경신 - 마트, 식품, 온라인, 슈퍼, 면세점, 하드디스크카운트스토어 등 모든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확대돼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음식료 관련주	제품 가격 인상 및 원화 강세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상승 여파로 연이어 제품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오뚜기(007310, +9.91%), 사조오양(006090, +9.33%), 사조대림(003960, +6.65%), 크라운제과(005740, +5.72%), 동원수산(030720, +5.39%), 샘표(007540, +5.08%) 등 강세
증권주	미 금리기조 완화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그룹이 SK증권 지분10%에 대해 전량 매각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SK증권이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강세 - SK증권(001510, +6.22%), 키움증권(039490, +6.12%), 미래에셋대우(006800, +5.85%), NH투자증권(005940, +3.98%), 골든브릿지증권(001290, +3.92%), 삼성증권(016360, +3.12%)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모두투어(080160) ▶33,450 (+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1.6%, 123.3%, 1,334.2%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신고가 경신
에치디프로(214870) ▶8,570 (+10.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CB 발행 결정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에버다임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버다임 (041440)	10,750 (-0.9)	10,850 (2/02)	- 국제유가 반등과 건설 수요 증가 등의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미국, 중동, 동남아 중심의 콘크리트 펌프카 해외 매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노후 재난 방지 시설에 대한 점검 속도가 빨라지며 소방 사다리 차량 교체 매출이 확대될 전망
에코프로 (086520)	11,300 (+0.9)	11,200 (1/16)	- NCA 양극활 물질의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설비증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 중국 최대 금속재생기업이자 양극업체인 GEM사와 공동으로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규모의 경제, 인건비 절감, 원재료 조달 경쟁력 강화 등이 예상되며 영업력이 확대될 전망
에스엔텍 (160600)	9,530 (-9.7)	10,550 (1/16)	-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차폐 적용 칩과 함께 스퍼터링(Sputtering)을 이용한 차폐 적용 업체들의 증가에 따른 수혜 - 대면적 및 중소형 OLED 패널 공정에 적용되는 물류장비와 합착장비 등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패널업체들의 OLED 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주 모멘텀 기대 유효
휴니드 (005870)	13,500 (-0.7)	13,600 (12/29)	-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TICN(군 종합전술정보 통신체계)프로젝트 향 HCTRS(대용량 무선전송체계) 납품이 16년 9월부터 본격화됐고 4분기 실적에 반영되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보잉, 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방산업체와의 제휴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방산매출 이외에 민간 업체 매출도 확대될 전망
베셀 (177350)	6,880 (+6.5)	6,460 (12/29)	-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정부 보조금에 기반한 LCD 생산라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예정된 투자 스케줄에 따라 In-Line 시스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 -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과 Tianma 향 OLED 장비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유니트론텍 (142210)	8,870 (-0.4)	8,910 (12/29)	-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 1위인 Micron사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 다만 AUO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이 더욱 확대되어 외형 성장 전망 - 조인트벤처인 '유니트론텍차이나'를 통해 중국 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4분기 실적 개선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청담러닝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청담러닝 (096240)	16,800 (-7.2)	18,100 (12/29)	163.1	27.8	15.1	2,194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표 영어교육 전문기업으로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 및 가맹형태로 운영하며, 콘텐츠 사업과 스마트러닝 기반의 스마트클래스 사업을 운영 - 베트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중국 온라인에듀케이션과 계약한 솔루션 로열티 수입이 본격화 될 전망 - 영재수학교육을 영위하는 자회사, CMS에듀케이션의 높은 실적 성장세에 주목 							
농심 (004370)	357,000 (+7.4)	332,500 (12/29)	2,464	153	142	24,521	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 효과,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 상승 등으로 실적 개선될 전망 - 경쟁품과의 가격과리가 50% 정도 벌어져 있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요 이탈이 미미할 것이며 마케팅 활동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공격적인 프리미엄 라면 출시가 예상되며 중국과 미국의 고성장 지속될 것 							
에스에프에이 (056190)	69,700 (+8.1)	64,500 (12/29)	1,368	138	96	5,479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패널업체들의 Flexible OLED 투자 확대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 - OLED증착기 경쟁업체인 에스엔유 인수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CAPA확장 - 3Q16 수주잔고는 7,42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주요 고객사가 상반기에 발주한 대규모 Flexible OLED장비 매출인식이 본격화 되면서 실적 호전 예상 							
CJ E&M (130960)	87,400 (+23.3)	70,900 (12/29)	1,643	98	89	2,304	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퀄리티와 흥행성을 두루 갖춘 콘텐츠 제작·유통 및 광고 단가 상승 등으로 방송 부문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 호전이 지속될 전망 -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과 지분법적용대상 '넷마블게임즈' 상장 추진에 따른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 							
이마트 (139480)	211,500 (+15.6)	183,000 (12/29)	14,600	501	296	10,619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식의 수요 증가가 편의점을 넘어 이마트로 확산되는 중. 피코크 등 PL상품 판매 확대로 상품마진이 상승하고 트래픽 증가로 이어질 전망 - 상품차별화로 트레이더스가 이마트의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협상력 개선에 따른 마진 상승과 매출증가의 선순환 예상 							
모두투어 (080160)	33,450 (+15.5)	28,950 (12/29)	239	21	18	1,542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에 기여하지 못했던 연결자회사들의 실적이 자유투어를 필두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수요 상승과 점유율 확대에 외형 증가,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등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 모두스테이는 내년 1~3개의 운영호텔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돼 순조로운 사업 확장 및 시너지 효과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미디어 · 광고: 1월 박스오피스 review: 연휴 효과로 높은 성장세 시현

■ 국내 박스오피스 매출액: +42.3% YoY

2017년 1월 국내 박스오피스는 한국 영화의 활약과 설 연휴 효과 등에 힘입어 높은 성과를 올렸다. 1월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1,888억원(+42.3% YoY), 관객수는 2,325만명(+37.5% YoY)을 기록했다. 특히 구정 연휴를 겨냥해 출시된 국내 영화와 외국 애니메이션의 흥행이 두드러졌다. 1월 18일 개봉한 공조(398억원, 관객수 486만명), 더킹(362억원, 관객수 441만명)이 박스오피스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2016년 일본 전체박스오피스 1위)*과 미국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겨울왕국, 주토피아에 이은 역대 디즈니 흥행 3위 작품)'의 관객수가 각각 342만명, 193만명을 기록해 박스오피스 성장에 힘을 더했다. 전년동월대비 국산 영화가 시장 성장을 견인해 국산 영화 매출액은 72.6% 증가한 반면, 외화는 17.3% 늘었다.

■ 중국 박스오피스 매출액: +26.3% YoY

중국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48.5억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26.3% 증가했다. 작년 8월 이후 5개월만에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작년 2월에 있던 춘절 연휴가 금년에는 1월 말~ 2월초에 나뉘어져 있어 1월 박스오피스 실적은 춘절 효과가 반영됐다. 1월 및 춘절 연휴기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서유기 속편인 '서유복요편(西游伏妖篇)'은 개봉 첫날 3.48억위안의 매출을 올려 '분노의 질주7(3.46억위안)'의 일일 최고 흥행기록을 경신했다. 춘절 기간 전체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33.8억위안으로 전년동월 30.7억위안대비 9.5% 증가했다. 1월 흥행작은 서유복요편(9.2억위안), 쿵푸요가(5.6억위안), 정성(5.5억위안) 순이었다. 상위 10개 작품 중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4위)'와 '패신저스(7위)'를 제외하고 8개 작품이 중국 영화였다(표4).

■ 연휴 시점 차이 영향 감안해야 하나 구조적 성장세는 지속

작년과 금년의 구정연휴 및 춘절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시차가 있다. 작년 한국의 설 연휴는 16년 2월 6일(토)~10일(수)이었으며 중국 춘절 연휴는 2월 7일(일) ~13일(토)이었다. 었다. 국내 박스오피스는 라인업(표3)을 감안할 때 2~3월에도 한국 영화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작된 도시, 싱글라이더, 더프리즈 등이 개봉할 예정이다. 중국 박스오피스는 전년 2월에 춘절 영향과 역대 흥행 1위인 미인어(16년 2월 8일 개봉) 영향 등으로 68.7억 위안(+67.3% YoY)의 수입을 올려 역기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박스오피스는 일일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하는 등 질적 성장은 지속하고 있어, 구조적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2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인터넷: Snapchat이 주도하는 셀카 어플 시장

■ Snapchat 3월 뉴욕증시(NYSE) 상장 예정

Snapchat을 운영하고 있는 Snap은 3월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초기 IPO 규모로 30억달러를 신고했으며 이에 기반한 기업 가치는 2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Alibaba 이후 상장된 Tech 기업 중 최고 수준이다. 2016년 매출액은 4억 448만 달러(+589.5% YoY)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순손실 규모가 5.2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용자 지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4분기 기준 DAU(Daily Active User)는 1.58억명(+48% YoY)으로 증가했으며 분기 ARPU는 1.05달러(+238.7% YoY)를 기록했다. 일 평균 어플리케이션 이용횟수는 18회에 달하며 25억개의 메시지와 이미지들이 전송된다. 높은 Valuation과 상장 이후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미지와 비디오 기반 SNS 기업의 상장으로 Snow와 B612 등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Snapchat과 Meitu 광고 매출 성장의 의미

Snapchat과 중국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인 Meitu의 광고 매출 성장은 카메라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Snapchat은 Story내 동영상 광고와 광고주들이 구매하는 스폰서드 렌즈 등 카메라를 백분 활용한 다양한 광고 상품 출시를 통해 모바일 광고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했다. Snapchat의 광고 상품들의 경우 이미지와 동영상 중심의 광고로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광고 상품 대비 효율이 높다. 중국을 포함해 4.6억명의 MAU(Monthly Active User)를 보유한 Meitu의 광고 매출 또한 의미 있는 성장세를 시현했다. 12월 광고 매출액은 2,790만 위안으로 2016년 상반기 월평균 광고 매출액인 480만 위안에서 481% 증가했다. 어플리케이션 내 사진 보정용 아이템 판매와 광고주 수요 확대가 성장을 견인했다. 우려와는 달리 흥미 위주 어플리케이션들의 monetization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후발 업체들의 성장 잠재력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 Snow와 B612 견조한 성장세 유지 중

Snapchat과 Meitu의 광고 매출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견조한 이용자 층을 보유한 Snow와 B612의 재평가가 빠르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Snow의 다운로드는 2016년 4분기 기준 1억회를 돌파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 중이다. 이 중 50% 수준의 유저들이 꾸준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etention rate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LINE이 보유 중인 B612의 다운로드 역시 3억건을 돌파했으며 MAU는 1억명을 상회한다. 특히 최근 8주간 신규 다운로드가 5,000만건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성장하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두 어플리케이션 모두 이미 monetization 가능성을 증명한 선두 업체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이다. 따라서 이용자 지표가 안정화 될 시 예상보다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Naver와 LINE의 기업 가치 확대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2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헬스케어: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보험 급여 적용 예정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패널 검사 보험 급여 신설 예정

보건복지부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특이사항이 없다면 3월 1일부터 보험 급여(본인 부담 50%)가 적용돼 환자들의 검사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NGS 패널 검사란 알려진 유전자 변이 수십 개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해 한번에 검사하는 것이다. 유전성질환과 비유전성질환으로 나뉘는데 비유전성질환은 대상질환이 고형암과 혈액암이다. 필수 유전자를 포함해 패널을 구성해야 하고 적용되는 보험 수가는 유전자수 50개 이하와 51개 이상 두 가지로 나뉜다. 진단시 1회 인정이 원칙이나 재발 및 치료 불응 시에 한해 추가 1회를 인정한다.

■ 유전자 검사 기반으로 표적치료제 처방의 근거

유전자 패널 검사의 결과는 암 발생 원인 유전자 변이를 찾고 치료 가능한 변이 및 이에 사용할 수 있는 표적치료제를 추천해준다. 가장 적합한 표적치료제를 투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덜고 환자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국내 건강보험 적용대상 표적치료제 항암요법은 15년 20개 암종 총 70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적치료제사용 환자수는 08년 11,528명에서 14년 37,024명으로 늘었으며 약제비 비중은 08년 25.3%에서 14년 48.1%로 크게 늘었다.

■ 미국 캔서패널 분기별 테스트 건수 빠르게 증가

NGS 유전체 검사는 14년 미국의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 라인에 정식 포함돼 전세계 병원 및 종양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Foundation Medicine은 NGS기반 패널검사를 제공하는 유전체 분석서비스 회사다. FoundationOne은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의 고형암에 대해서 315개 유전자 영역 및 28개 유전자의 인트론 영역을 검사하고 비용은 5,800달러다. FoundationHeme은 혈액암 대상 테스트로 405개의 유전자의 DNA와 265개 유전자의 RNA를 검사하고 비용은 7,200달러다. 고가의 테스트임에도 민간보험이 적용돼 16년 3분기 테스트 건수는 각각 9,398건, 1,325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4.3%, 30.9% 증가했다.

■ Q 증가로 유전체 분석 산업에 긍정적

아직 보험 급여의 정확한 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50개 이하 유전자는 70만원, 51개 이상 유전자는 100만원의 수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패널검사가 고가임에도 임상적 유효성 입증과 처방 가능한 표적치료제 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과 비교해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검사가 누적될수록 데이터가 쌓여 검사의 유용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패널검사 보험 급여 적용으로 기존 연구 분야에 국한된 유전체분석이 임상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유전체 분석 업체들(마크로젠, 랩지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매년 신규 암환자는 18만명에 달해 수검률 상승으로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2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이마트(139480)

매수(유지)

목표가: 270,000원(유지)

종가(2/2): 204,000원

뜯어보니 더 놀라운 실적

■ 상품 차별화가 주도한 이익 개선

이마트의 4분기 세부실적이 발표되었다. 지난 1월 25일 연간실적 공시에 이어 부분별 매출과 매출총이익, 영업손익 등 내용이다. 이마트의 4분기 영업이익은 1,29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3% 증가했는데, 이익 증가의 요인은 상품 매출이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결기준의 전체 매출총이익률은 28.4%로 전년동기대비 30bp 높아졌으며, 특히 오프라인 할인점의 매출총이익률은 27.7%로 전년동기대비 66bp 상승했다. PL상품과 피코크 등 HMR상품이 인기를 끌며 매출성장을 주도하고 동시에 상품매출이익률도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 할인점 및 여타 모든 부문 호조

할인점 영업이익은 1,46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3% 늘어났다. 예상보다 부진했던 기존점매출증가율 0.5% 대비 큰 폭의 이익 개선이다. 트레이더스는 20% 수준의 기존점매출증가율이 지속되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90억원을 기록했다. 상품차별화는 슈퍼마켓 에브리데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기 낮은 base영향까지 겹치면서 기존점매출이 전년동기대비 7.0% 늘어났으며, 영업손실도 전년동기 82억원에서 26억원으로 개선되었다. 그 외 이마트몰과 신세계조선호텔도 영업손실폭이 축소되었으며, 신세계푸드는 전년동기 17억원 적자에서 66억원 흑자로 전환되었다. 특히 스타필드하남은 개장 2분기만에 흑자전환되었다. Traffic이 주도한 실적개선이며, normalized 영업이익률 7.0%에 빠르게 근접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대되는 2017년, 영업이익 19.3% 증가 예상

이마트의 상품개발에 주목한다. 이마트PL, 피코크 등의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마진이 개선되고, 더 많은 성공의 경험과 소비자 feedback 등을 통해 히트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Traffic을 위해 낮은 마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모두 가져오는 배타적 상품의 개발은 할인점뿐 아니라 이마트의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등 모든 소매업태에 영향을 미치며, 실적 개선은 구조적이다. 이마트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7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주가는 2017F PER 12.7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2017F PER 16.7배, implied PBR 1.0배에 해당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13,154	583	290	10,408	(37.9)	997	19.5	9.5	0.8	4.3	0.7
2015A	13,640	504	455	16,319	56.8	938	11.6	10.1	0.8	6.5	0.8
2016F	14,791	547	376	13,501	(17.3)	1,003	13.6	9.1	0.7	5.3	0.8
2017F	16,085	653	447	16,040	18.8	1,130	12.7	8.7	0.7	5.9	0.7
2018F	17,503	789	547	19,626	22.4	1,288	10.4	7.7	0.7	6.9	0.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2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헬로비전(037560)

중립(유지)

종가(2/3): 9,150원

구조적 비용 증가로 수익성 부진

■ What's new : 4분기 실적은 콘텐츠 비용 소급반영으로 추정치 하회

4분기 영업실적은 지난 2년간의 비용 인상분을 일시에 반영해 우리의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 매출액은 2,615억원으로 추정치를 5.9% 하회했으며 영업이익은 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15~16년 인하 금액 190억원(15년 4.5%, 16년 4.5% 인하 추정)을 일시에 소급 반영했다. 또한 콘텐츠 구매비용 인상 소급분 215억원(15년 60억원, 16년 155억원)도 일시에 반영했다. 알뜰폰과 관련한 일회적 비용도 80억원 계상했다. 매출액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하 소급 반영과 가입자당 매출액(ARPU) 감소로 전분기대비 6.7%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 Positives : 방송 및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세로 전환

방송 가입자수는 마케팅 강화로 2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알뜰폰 가입자도 4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통 3사 이동통신과의 동등결합 판매가 가입자 이탈을 줄일 것이다. 디지털 TV 가입자 비중이 64.2%로 상승하고 아날로그 비중이 35.8%로 하락해 아날로그가입자 이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신규 T커머스 업체의 방송 시작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차입금 상환으로 부채비율이 15년 110.3%에서 90.4%로 하락했으며 금융수지도 크게 개선됐다.

■ Negatives : 콘텐츠 구매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하락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하와 콘텐츠 구매 가격 인상분을 일시에 반영했으나 향후 추가 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 방송과 결합상품으로 판매되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의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 모두 ARPU가 하락하는 추세다. 17년 영업이익률은 6.8%로 비용을 소급 반영한 16년 3.9%보다는 높을 것이나 15년 8.9%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이다.

■ 결론 : 중립의견 유지

CJ헬로비전에 대한 중립의견을 유지한다. 매출 정체, 구조적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방송과 알뜰폰 가입자 증대는 마케팅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단위: 십억원, %, %p)

	4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78.1	261.5	(5.9)	278.4	(6.7)	(10.3)	1,106.9	1,121.9
영업이익	18.2	(30.0)	NM	17.6	NM	NM	75.3	97.1
영업이익률	6.6	(11.5)	(18.0)	6.3	(19.9)	(18.2)	6.8	8.7
세전이익	14.4	(38.2)	NM	15.3	NM	NM	59.3	83.2
순이익	11.1	(29.1)	NM	9.7	NM	NM	46.8	65.5

*상기 보고서는 2017년 2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텔레콤(017670)

매수(유지)

목표가: 282,000원(유지)

종가(2/3): 219,500원

자회사 실적 턴어라운드로 연결 손익 호전 예상

■ What's new : 4분기 영업이익은 추정치 하회

4분기 영업실적은 우리의 추정치 및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매출액은 우리의 추정치를 0.8% 밑돌았으며 영업이익은 3,019억원으로 17.7% 하회했다. SK플래닛의 영업손실이 1,2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30억원 늘어난 데다 인건비가 늘고 고객포인트관련 충당금 20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세전이익은 하이닉스 지분법이익 증가로 6.9% 상회했으며 순이익은 법인세율 하락으로 23.9% 웃돌았다. SK플래닛과 SK브로드밴드 매출이 전분기대비 각각 8.2%, 2.5% 늘어 연결 매출액이 2.6% 늘었다. 영업이익은 마케팅비용, 감가상각비가 늘어 전분기대비 28.8%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하이닉스 지분법이익 증가, 포스코 지분매각이익(1,409억원) 반영으로 50.4% 늘었다.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선택약정 가입자 비중이 높아진 데다 1인 2폰, 사물인터넷 가입자 증가로 전분기대비 0.3% 줄었다.

■ Positives : 17년 영업이익 15.4%, 조정 순이익 54% 증가 예상

e커머스, 미디어, 사물인터넷의 성장성이 높다. SK플래닛의 11번가는 매출 호조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16년에 방문자수, 거래액 기준으로 국내 1위의 e커머스 업체로 등극했다. 17년에 마케팅비용 감소로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17년 IPTV 매출액은 가입자와 ARPU 증가로 전년대비 16.9% 늘어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은 12월부터 IoT 전용 LoRa망을 활용해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특히 원격검침, 보안, 스마트홈 등 영역에서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17년 영업이익은 SK브로드밴드 손익 호전과 SK플래닛 적자 축소로 전년대비 15.4%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17년 조정 순이익(16년 매각차익 4,547억원 제외)은 SK하이닉스 수익이 호전돼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Negatives : 점유율 하락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조항이 17년 10월에 폐기된다. 요금할인율(현재 20%), 지원금 공시 후 유지기간(7일) 등 여타 조항 변경 여부가 마케팅 환경을 좌우할 변수다. 가입자 점유율이 하락세다. 12월 점유율은 49.1%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

■ 결론 :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82,000원 유지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82,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조정이익 기준 적정주가 201,262원(PER 13.2배 적용)과 SK하이닉스 지분가치 80,797원(25% 할인)을 더해 산정했다. 배당수익률이 4.6%에 달해 배당메리트가 높다.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의 수익 턴어라운드가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단위: 십억원, %, %p)

	4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388.8	4,352.3	(0.8)	4,358.9	2.6	(0.6)	17,402.3	17,499.4
영업이익	366.7	301.9	(17.7)	370.2	(28.8)	(24.9)	1,773.0	1,707.0
영업이익률	8.4	6.9	(1.4)	8.5	(3.1)	(2.2)	10.2	9.8
세전이익	527.5	564.1	6.9	462.4	30.8	39.3	2,636.0	2,018.8
순이익	394.5	488.9	23.9	342.1	50.4	65.2	2,031.7	1,565.3

*상기 보고서는 2017년 2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원익IPS(240810)

매수(유지)

목표가: 28,000원(유지)

종가(2/3): 23,350 원

앞으로도 계속 좋다!

■ What's new : 예상을 하회하는 영업이익에는 우려할 요인 없음

원익IPS의 4Q16 매출액은 전분기와 유사한 959억원,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35% 증가한 143억원(OPM 14.9%)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당사 예상치(172억원, OPM 17.2%)를 17%, 컨센서스(174억원, OPM 16.3%)를 18% 하회했다. 1) 연말로 예상했던 반도체 장비 입고 일부가 1월초로 연기되면서 반도체 매출(739억원 추정)이 당사 예상치(807억원)를 8% 하회했고, 2) 성과급 관련 일회성 비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경우 OPM은 20%에 육박하는 만큼 예상치를 하회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다.

■ Positives : 본격적인 3D NAND 매출인식 구간 진입

예상대로 당사는 본격적인 3D NAND 매출인식 구간에 진입했다는 판단이다. 1) 4Q16에는 국내라인 중 유희공간을 활용한 3D NAND 증설투자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2) 연말부터는 주요 고객사의 신규 3D NAND라인향 장비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1Q17 반도체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63% 증가한 1,202억원, 전사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128% 증가한 327억원(OPM 21.8%)으로 전망된다.

■ Negatives : 상반기 매출 인식률이 높지만 증장기 실적 모멘텀은 유효

이렇듯 전방시장의 3D NAND 투자가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 매출 인식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불가피하다(1H17 매출 인식률 61%, 영업이익 인식률 67%로 예상). 다만, 당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증장기 실적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본다. 1) 2017년에는 전년대비 DRAM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2) 과거대비 고객 다변화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

■ 결론 : 반도체 증착장비 업체에 대한 긍정적 시각 유효, 목표주가 28,000원 유지

원익IPS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28,000원(2017년 EPS에 14.1배)을 유지한다. 투자포인트는: 1) 2017년 대규모 3D NAND 투자에 대한 최대 수혜주이고, 2)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DRAM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3) 신규 application 및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가시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5,099억원, 영업이익은 256% 증가한 1,022억원(OPM 20%)으로 전망되고 주가는 2017년 EPS를 기준으로 11.7배에 거래되고 있다..

(단위: 십억원, %, %p)

	4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99.8	95.9	(3.9)	106.9	0.3	-	509.9	522.2
영업이익	17.2	14.3	(16.7)	17.4	34.5	-	102.2	102.5
영업이익률(%)	17.2	14.9	(2.3)	16.3	3.8	-	20.0	19.6
세전이익	11.5	13.4	16.2	17.7	27.9	-	104.7	102.6
순이익	8.4	10.9	29.1	13.4	23.2	-	82.2	78.7

*상기 보고서는 2017년 2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국타이어(161390)

매수(유지)

목표가: 77,000원(유지)

종가(2/3): 58,900원

이미 시작된 가격인상

■ What's new: 4Q16실적은 판관비 증가로 컨센서스 하회

한국타이어(이하 '한타') 4분기 실적은 판관비가 늘고 ASP가 하락해 예상을 하회했다. 영업이익은 2,397억원(OPM 14.8%)을 기록하며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19%, 10.2% 하회했다. 2016년 이익증가로 4분기 성과급이 늘었고 유가상승으로 물류비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4분기 반영된 성과급 증가분을 200억원으로 가정 시 OPM은 16.1% 수준이다.

■ Positives: 사업계획에 담긴 수익성 방어 의지

한타는 수익성 방어 의지가 담긴 2017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매출 7조 2,217억원(+9% YoY), 영업이익 1조 1,016억원(-0.1% YoY, OPM 15.3%)을 제시했다(당사 추정치 대비 매출 -2.6%, 영업이익 -1.9%). 사업계획의 주요 가정을 감안 시 매출은 사업계획보다 높을 전망이며 수익성은 다소 낮을 전망이다. 이 밖에 2017년 핵심 전략으로 1) 테네시 및 여타공장 가동률 상승, 2) 이머징 신규수요 확보, 3) 고인치 판매 확대로 믹스개선, 4) second brand 라우펜 물량 증가를 제시했다.

■ Negatives: 조심스런 가격정책

한타는 실적설명회에서 가격인상 기조를 분명히 했고 이미 일부 지역에는 인상을 단행했음을 밝혔다. 다만 미국시장에 대해서는 수요부진과 경쟁심화를 언급하면서 가격인상에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런 반응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업체들이 미국에서 상당한 폭의 가격인상을 이미 단행했기 때문에 시장은 가격인상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타의 보수적인 언급을 테네시 공장 가동을 앞둔 시점에서의 딜러 관리 차원으로 해석하며, 곧 가격인상에 동참할 전망이다.

■ 결론: 가격인상 기조가 이어진다, 타이어 최선호주 유지

2016년 타이어를 둘러싼 논쟁이 가격인상 여부에 집중됐다면 2017년은 급격한 마진축소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는 믹스개선과 판가인상, 그리고 점진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마진이 제한적으로 하락하는 시황을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고성능타이어가 신차용(OE)에서 교체용(RE)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격인상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고무가격의 투기적수요 거품도 빠지면서 단기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 미국 테네시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하반기에 한타의 수익성은 다시 15%를 상회할 전망이다. 목표주가 77,000원과(12MF PER 10배) 타이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4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770	1,615	(8.8)	1,649	(2.6)	1.2	7,411	7,042
영업이익	296	240	(19.0)	267	(20.8)	0.2	1,122	1,109
영업이익률	16.7	14.8	(1.9)	16.2			15.1	15.7
세전이익	322	231	(28.2)	-	(14.6)	0.0	1,126	-
순이익	238	184	(22.8)	196	(11.6)	(3.1)	901	861

*상기 보고서는 2017년 2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녹십자(006280)

매수(유지)

목표가: 206,000원(유지)

종가(2/3): 142,500

백신과 수출 매출은 양호, 17년 기대치는 낮추어야

■ What's new : 백신과 수출 성장이 비용 증가를 상쇄

녹십자는 4Q16 매출액 3,210억원(+18.1% YoY), 영업이익 90억원(+1,698% YoY)의 실적을 발표하였다. 4분기는 계절적으로 판관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여왔다. 하지만 올해는 독감유행과 이연된 수두백신 수주로 인해 외형성장은 양호했다는 판단이다. 경쟁심화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독감백신은 내수시장 백신 품질사태로 인해 4분기에만 123% 증가한 136억원, 연간으로 2.3% 증가한 587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수출 역시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16년 들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었으나 매출인식이 이연된 수두백신과 IVIG 수출 실적이 반영되면서 7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생산시설의 QC 강화로 원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2%p 상승하였으며, 연구개발비도 매출 대비 10.7%로 여전히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영업이익률은 2.8%에 그쳤다. 17년에는 조스터박스 성장정체와 바라크루드 효과가 사라지면서 백신과 ETC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R&D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 Positives : R&D 투자 성과는 고무적, 올해 말 IVIG 의 미국 허가 기대

수익성에는 부정적이지만 공격적으로 투자확대 중인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희귀의약품 헌터라제는 미국 임상 2상, 혈우병치료제 그린진-F는 중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16년 12월 4가 독감백신이 WHO PQ 인증을 받아 17년부터 입찰참여가 가능해졌고, 세포배양 방식의 4가 독감백신은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IVIG-sn이 16년 말 제조공정 자료보완으로 허가가 지연되었으나 올해 하반기 최종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Negatives :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어야

17년 어닝모멘텀은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IVIG-sn의 허가과 신공장 가동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 전까지는 매출성장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올해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 1조3,018억원(+8.7% YoY), 영업이익 851억원(+8.4% YoY)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 결론 :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 장기적 관점의 투자 바람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 진출과 중국시장에서의 입지강화라는 펀더멘털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혈액제제 특성상 타제약사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17년 실적대비 타겟 PER 30배로 목표주가 206,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4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01	321	6.8	311	(2.0)	18.9	1,302	1,246
영업이익	11	9	(16.9)	9	(74.1)	1,466.0	85	89
영업이익률	3.6	2.8	(0.8)	2.9	(7.8)	2.6	6.5	7.2
세전이익	11	23	110.9	11	(14.6)	NM	93	86
순이익	10	19	91.8	8	(14.1)	NM	75	67

*상기 보고서는 2017년 2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이노베이션(096770)

매수(유지)

목표가: 260,000원(유지)

종가(2/3): 156,500원

EPS와 DPS의 동반 성장 전망

■ What's new: 연말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어닝쇼크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실적은 어닝쇼크였다. Top line과 bottom line 모두에서 일회성비용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05% 증가했으나, 2,750억원 이상의 일회성비용을 반영하며 추정치를 22% 하회했다. 1) 재고자산 비용처리와 성과급 지급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이 반영됐고, 2) No.2 RFCC 설비와 인천석유 설비의 정기보수로 1,250억원 가량의 기회손실이 발생했으며, 3) NCC 정기보수로 600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했다. 4분기 순이익 또한 전분기 대비 60% 감소하며 추정치를 하회했다. 영업외단에서 약 5,000억원(E&P 자산 손상차손 3,141억원과 환손실)의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고, 법인세를 또한 55%(기존 25% 추정)로 높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1) 지난 해 4분기 대규모 일회성비용에도 불구하고 EPS는 105% 성장했고, 2) 지난 12월 신입 CEO 임명과 함께 경영진이 교체됨에 따라 연말에 대규모 비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Positives: 2016년 실적 턴어라운드로 DPS 33% 증가

4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면은 1) 2016년 DPS가 예상외로 높았던 것과 2) 정유 부문의 실적 턴어라운드다. 2016년 DPS는 전년대비 33% 증가했고, 배당성향은 35%다. SK그룹에서 계열사들의 배당성향을 30%로 높이겠다는 가이드를 제시했고, 과거 2년간 30% SK이노베이션의 배당성향이 30% 이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볼 때, 향후에도 동사는 그룹 차원의 배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배당수익률은 6.5%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4분기 정유부문 실적은 전분기 대비 609% 개선됐는데, 정기보수 비용과 연말 일회성비용 인식으로 추정치를 15% 가량 밑돌았다. No.2 RFCC 가동률은 3분기 100%에서 4분기 58%로 하락했고, 인천석유 가동률 또한 3분기 67%에서 4분기 58%로 하락했다. 재고평가이익 1,700억원을 포함한 주요 일회성 요인들을 모두 제외한 4분기 정유부문의 영업이익은 6,000억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Negatives: 대규모 일회성 비용

석유화학, 윤활기유 사업의 4분기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각각 25%, 15% 하회했다. 정기보수 영향과 연말 일회성비용 반영 때문이다. 또한, 세계 정세불안과 낮은 유가로 인해 미국, 리비아, 페루 등의 유전에서 3,141억원의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했다.

■ 결론: 주가는 저평가 상태. 높은 배당수익률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 전망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60,000원을 유지한다. 1) 2017년 EPS는 기저효과와 정유/석유화학 부문의 마진 개선으로 87% 성장할 전망이다, 2) 2017년 ROE가 18%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 주가는 PBR 0.8배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고배당 정책도 더해져 매력적이다.

(단위: 십억원, %, %p)

	4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9,649	10,079	4.5	10,844	3.9	(7.3)	46,150	48,057
영업이익	1,093	849	(22.3)	863	104.7	208.0	4,354	2,929
영업이익률	11.3	8.4	(2.9)	8.0	4.2	5.9	9.4	6.1
세전이익	1,025	352	(65.7)	760	(18.4)	NM	4,333	2,684
순이익	739	144	(80.5)	554	(59.9)	NM	3,126	2,002

*상기 보고서는 2017년 2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31(화)	2/1(수)	2/2(목)	2/3(금)	2/6(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67.57	2,080.48	2,071.01	2,073.16	2,077.66
	등락폭		-16.02	12.91	-9.47	2.15	4.5
	등락종목	상승(상한)	370(0)	597(6)	229(0)	338(0)	440(5)
		하락(하한)	447(0)	200(0)	596(4)	479(2)	370(0)
	ADR		85.40	90.78	85.10	82.14	80.69
	이격도	10 일	99.91	100.45	100.00	100.09	100.28
		20 일	100.28	100.78	100.25	100.29	100.42
	투자심리		50	60	50	60	60
	거래량	(백만 주)	288	453	825	393	313
	거래대금	(십억 원)	4,596	4,532	5,707	4,913	3,827
코스닥	코스닥지수		616.13	623.68	613.04	609.21	610.96
	등락폭		-0.68	7.55	-10.64	-3.83	1.75
	등락종목	상승(상한)	535(2)	796(1)	233(1)	384(2)	602(1)
		하락(하한)	573(0)	306(0)	891(9)	720(5)	504(0)
	ADR		95.71	96.97	95.42	94.94	95.33
	이격도	10 일	99.40	100.68	99.14	98.81	99.33
		20 일	97.97	99.24	97.73	97.36	97.88
	투자심리		20	30	30	20	30
	거래량	(백만주)	727	938	1268	1218	647
	거래대금	(십억원)	2,484	2,519	3,234	3,201	2,557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666.1	1,220.5	866.4	311.9	75.3	175.3	105.1	15.2	183.8	77.5
	매도	1,778.6	1,218.0	804.3	267.2	77.0	174.4	107.4	12.0	166.3	29.7
	순매수	-112.5	2.5	62.2	44.6	-1.7	0.9	-2.3	3.1	17.5	47.8
	2월 누계	-27.5	-47.7	-120.9	177.2	0.5	-94.0	-106.0	7.8	-106.4	196.2
	17년 누계	-12.2	1,591.8	-2,085.3	-167.2	-96.6	-983.7	-529.2	-27.7	-281.1	505.8
코스닥	매수	2,300.7	170.4	85.9	27.2	6.0	20.8	14.6	2.0	15.3	14.7
	매도	2,304.9	149.7	102.8	24.2	13.5	29.8	16.4	2.2	16.8	14.3
	순매수	-4.2	20.7	-16.9	3.1	-7.5	-9.0	-1.8	-0.2	-1.5	0.4
	2월 누계	36.8	11.5	-52.3	17.7	-19.7	-31.0	-3.6	-0.1	-15.6	4.0
	17년 누계	885.8	-135.6	-667.0	-282.4	-52.8	-171.2	-46.6	-12.1	-101.8	-83.2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증권	8,545	전기전자	-8,937
유통업	7,231	서비스업	-5,533
기타금융업	6,950	운수장비	-4,484
한국타이어	7,893	SK이노베이션	-7,744
한국전력	5,435	삼성전자	-7,581
삼성SDI	5,062	LG디스플레이	-3,834
SK	4,553	동원F&B	-3,236
NH투자증권	4,256	아모레퍼시픽	-3,05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음식료	10,603	운수장비	-10,902
서비스업	9,237	화학	-10,686
전기전자	6,504	철강금속	-10,450
CJ제일제당	7,248	풍산	-6,430
한국전력	5,884	SK이노베이션	-6,140
NAVER	5,798	한국타이어	-5,420
SK하이닉스	5,705	LG디스플레이	-4,866
LG화학	5,457	현대모비스	-4,78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519	전기전자	-1,413
운수장비	1,234	운수창고	-719
유통업	871	철강금속	-718
SK	3,122	KINDEX 200	-1,101
KODEX 레버리지	879	삼성SDI	-1,096
TIGER 200	833	현대글로비스	-979
SK네트웍스	752	KOSEF 달러인버스선물	-613
현대중공업	750	TIGER 경기방어	-50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증권	5,188	미분류	-16,535
통신업	4,520	화학	-7,432
기타금융업	1,666	전기전자	-5,212
SK텔레콤	4,501	TIGER 차이나H	-5,913
미래에셋대우	3,988	SK이노베이션	-4,236
엔씨소프트	1,530	삼성전자	-3,903
SK	1,452	KODEX 200	-3,647
NH투자증권	1,290	KBSTAR 200	-3,60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25,264	화학	-30,197
증권	21,408	철강금속	-14,894
음식료	14,766	운수장비	-14,808
삼성SDI	16,892	SK이노베이션	-22,028
LG화학	13,836	LG디스플레이	-16,285
SK	13,593	아모레퍼시픽	-11,553
미래에셋대우	11,465	아모레G	-10,115
NAVER	9,787	현대차	-7,135
한국전력	9,651	TIGER 200	-6,935
이마트	9,411	S-Oil	-6,927
현대중공업	8,528	풍산	-6,071
NH투자증권	7,770	코오롱인더	-5,404
KB금융	7,764	대림산업	-5,23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31,915	전기가스	-19,824
음식료	19,572	운수장비	-18,360
통신업	10,617	전기전자	-14,003
KT&G	12,854	삼성전자	-35,140
LG생활건강	10,500	한국전력	-19,163
아모레G	8,608	아모레퍼시픽	-16,255
LG디스플레이	8,346	한국항공우주	-15,190
TIGER 200	6,989	삼성바이오로직스	-8,294
KODEX 레버리지	6,779	한국타이어	-7,920
LG유플러스	6,073	엔씨소프트	-6,714
삼성SDI	5,727	SK이노베이션	-6,630
S-Oil	5,159	현대위아	-5,774
SK텔레콤	4,688	기업은행	-5,27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424	반도체	-8,890
기계,장비	231	제약	-559
IT부품	217	전문기술	-435
CJ E&M	1,407	SK머티리얼즈	-1,540
엠씨넥스	1,126	원익IPS	-1,377
코스메카코리아	644	바텍	-1,174
오스템임플란트	539	테스	-970
동국제약	460	비아트론	-768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609	제약	-1,987
반도체	920	인터넷	-547
의료,정밀기기	839	금속	-502
GS홈쇼핑	996	휴젤	-1,152
모두투어	721	SK머티리얼즈	-570
엠씨넥스	636	카카오	-543
원익IPS	635	메디톡스	-391
CJ오쇼핑	618	태웅	-37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462	반도체	-546
컴퓨터서비스	247	기계,장비	-388
제약	169	연구,개발	-191
CJ오쇼핑	419	고영	-250
정원엔시스	235	실리콘웍스	-242
서울반도체	121	AP시스템	-224
이엔에프테크놀로지	95	큐리언트	-191
메디톡스	77	클리오	-128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467	반도체	-6,263
방송서비스	413	IT부품	-413
종합건설	317	도매	-314
CJ오쇼핑	873	SK머티리얼즈	-2,911
이테크건설	271	AP시스템	-1,139
나스미디어	231	비아트론	-850
휴젤	229	CJ E&M	-497
우리산업	191	컴투스	-40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5,614	반도체	-18,859
사업지원	1,880	기계,장비	-1,668
의료,정밀기기	1,240	화학	-1,225
오스템임플란트	3,319	SK머티리얼즈	-5,894
엠씨넥스	2,395	메디톡스	-2,239
CJ오쇼핑	2,263	테스	-2,153
모두투어	1,794	파트론	-2,141
GS홈쇼핑	1,746	원익IPS	-1,629
CJ E&M	1,589	바텍	-1,563
코미팜	1,092	AP시스템	-1,407
서울반도체	1,078	비아트론	-1,397
셀트리온	908	아이씨디	-1,366
동국제약	899	덕산네오룩스	-98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1,464	방송서비스	-2,999
디지털컨텐츠	2,785	반도체	-2,183
연구,개발	2,319	운송장비, 부품	-1,271
메디톡스	5,873	AP시스템	-3,515
휴젤	2,614	비아트론	-3,362
서울반도체	2,578	CJ E&M	-1,951
에스에프에이	1,496	카카오	-1,348
에스코넥	1,360	에프티이앤이	-1,183
지스마트글로벌	1,351	HB테크놀로지	-1,118
컴투스	1,077	GS홈쇼핑	-988
원익IPS	1,003	파인디앤씨	-978
더블유게임즈	860	SKC코오롱PI	-817
바이로메드	836	SG&G	-76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휴비스	21 일	동원산업	22 일
체시스	18 일	한독	19 일
진양폴리	18 일	메리츠금융지주	15 일
신풍제지	18 일	대원제약	15 일
국보	18 일	한국제지	15 일
한국공항	17 일	고려제강	14 일
일성신약	16 일	KB캐피탈	12 일
유성기업	16 일	세이브존I&C	11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이베스트투자증권	27 일	금화피에스시	27 일
사파이어테크놀로지	18 일	인터로조	13 일
아이텍반도체	18 일	나이스디앤비	9 일
케이앤더블유	18 일	네오팜	9 일
에스앤더블류	18 일	아비코전자	9 일
한국정밀기계	18 일	CJ프레시웨이	8 일
ITX엠투엠	18 일	나노엔텍	8 일
네패스신소재	18 일	제룡전기	8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LG화학	89,632	TIGER 200	74,406
LG전자	60,265	LG전자	68,890
SK	45,574	아모레G	42,132
삼성SDI	42,598	현대건설	35,071
한국타이어	41,592	하나금융지주	33,613
NAVER	29,621	삼성엔지니어링	33,192
현대중공업	27,621	현대제철	32,157
현대건설	25,353	LG생활건강	28,993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휴젤	11,045	리노공업	10,225
CJ오쇼핑	9,979	서울반도체	8,931
주성엔지니어링	7,432	에스에프에이	6,380
GS홈쇼핑	6,479	CJ E&M	5,531
오스템임플란트	6,154	바이로메드	3,835
셀트리온	5,087	컴투스	3,752
서울반도체	5,037	SKC코오롱PI	3,531
일진파워	4,787	메디톡스	3,116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음식료		14,766	19,572 34,338
증권		21,408	7,145 28,553
유통업		25,264	92 25,357
삼성SDI		16,892	5,727 22,619
LG화학		13,836	4,432 18,268
KT&G		4,938	12,854 17,792
미래에셋대우		11,465	2,731 14,196
NAVER		9,787	3,159 12,946
SK텔레콤		5,821	4,688 10,508
오뚜기		6,285	4,145 10,430
CJ제일제당		7,287	2,984 10,272
하나금융지주		4,069	1,604 5,673
LG전자		5,594	40 5,634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1,189	2,785 3,974
컴퓨터서비스		990	1,068 2,058
통신장비		181	1,308 1,489
오스템임플란트		3,319	428 3,747
서울반도체		1,078	2,578 3,656
엠씨넥스		2,395	742 3,137
컴투스		618	1,077 1,695
텍셀네트컴		725	808 1,533
바이로메드		325	836 1,162
더블유게임즈		168	860 1,028
제이콘텐트리		712	274 986
쇼박스		359	397 756
툼텍		138	555 69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롯데정밀화학	28 일	모토닉	40 일
효성	26 일	대양금속	34 일
벽산	25 일	KISCO홀딩스	29 일
부국철강	24 일	LS전선아시아	22 일
서울가스	22 일	한신공영	20 일
교보증권	19 일	알보젠코리아	20 일
메리츠금융지주	18 일	동일산업	18 일
한독	18 일	삼성화재	1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리드코프	39 일	현대공업	36 일
아이쓰리시스템	33 일	한국가구	34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26 일	에스티오	30 일
휴메딕스	23 일	씨큐브	25 일
제넥신	23 일	동아화성	25 일
남화토건	23 일	휴맥스	22 일
엘앤케이바이오	22 일	KCC건설	21 일
애니젠	21 일	아이디스	20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아모레퍼시픽	-91,275	삼성전자	-208,325
TIGER 200	-74,634	한국전력	-63,982
아모레G	-66,144	한국항공우주	-60,657
현대차	-61,805	현대모비스	-58,917
LG디스플레이	-55,869	SK하이닉스	-46,784
SK이노베이션	-36,784	한국타이어	-43,997
기아차	-33,699	LG화학	-42,155
현대위아	-31,446	SK	-37,607

KOSDAQ			
기	관	외	국 인
SK머티리얼즈	-19,617	셀트리온	-12,265
리노공업	-10,469	카카오	-11,442
원익IPS	-7,604	SK머티리얼즈	-10,230
에스에프에이	-5,757	AP시스템	-7,023
파트론	-5,028	파라다이스	-5,373
비아트론	-4,996	뷰웍스	-4,266
솔브레인	-3,439	비아트론	-4,095
서부T&D	-3,070	GS홈쇼핑	-4,084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14,808	-18,360	-33,169
화학	-30,197	4,013	-26,184
철강금속	-14,894	2,670	-12,224
삼성전자	-2,843	-35,140	-37,983
SK이노베이션	-22,028	-6,630	-28,658
아모레퍼시픽	-11,553	-16,255	-27,807
한국항공우주	-4,559	-15,190	-19,749
현대위아	-2,576	-5,774	-8,350
POSCO	-4,778	-1,072	-5,850
기아차	-5,208	-130	-5,339
현대글로비스	-3,709	-97	-3,806
한화	-1,829	-426	-2,255
GS	-1,197	-990	-2,187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18,859	-2,183	-21,043
인터넷	-1,034	-1,148	-2,182
화학	-1,225	-645	-1,869
AP시스템	-1,407	-3,515	-4,922
비아트론	-1,397	-3,362	-4,759
파트론	-2,141	-109	-2,250
테스	-2,153	-24	-2,177
카카오	-606	-1,348	-1,954
HB테크놀러지	-563	-1,118	-1,681
SKC코오롱PI	-359	-817	-1,175
이오테크닉스	-334	-735	-1,069
DMS	-773	-151	-924
원익홀딩스	-163	-610	-77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2	63,502
한국항공우주	603	36,351
SK하이닉스	452	23,841
금호석유	226	18,314
아모레퍼시픽	53	15,975
롯데케미칼	37	14,547
S-Oil	130	10,530
LG화학	33	8,97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50	3,934
서울반도체	195	3,097
메디투스	6	2,413
파라다이스	161	2,099
AP시스템	76	2,003
디오	48	1,637
셀트리온	14	1,425
휴젤	3	894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687	7,274,193
SK하이닉스	32,832	1,763,064
NAVER	1,313	1,016,229
POSCO	3,697	981,599
아모레퍼시픽	2,401	723,922
LG생활건강	783	669,153
현대차	4,599	632,319
OCI	7,284	622,02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4,753	2,512,392
카카오	9,944	775,621
로엔	3,282	252,066
바이로메드	2,227	232,266
코미팜	6,006	189,493
메디투스	408	170,508
파라다이스	10,546	137,100
AP시스템	3,481	91,716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5,673 화학	-3,870	
서비스업	1,907 건설업	-3,127	
기계	1,447 미분류	-2,363	
대한항공	4,939 미래에셋대우	-2,458	
메리츠증권증권	1,530 TIGER 200	-2,400	
삼성엔지니어링	1,215 대우건설	-2,172	
한국항공우주	1,024 삼성중공업	-1,702	
한온시스템	1,010 넥센타이어	-1,548	
SK하이닉스	819 LG유플러스	-1,411	
삼성증권	817 중국원양자원	-945	
동양물산	766 한솔제지	-925	
SK네트웍스	713 맥쿼리인프라	-713	
LG디스플레이	708 삼성SDI	-70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제약	2,866 방송서비스	-745	
IT부품	2,117 미분류	-710	
종합건설	1,056 출판,매체복제	-267	
셀루메드	1,587 씨씨에스	-813	
서희건설	1,178 이스트아시아홀딩스	-713	
지연코	987 SKC 솔믹스	-392	
유지인트	672 대아티아이	-298	
브레인콘텐츠	603 주성엔지니어링	-288	
세미콘라이트	598 카카오	-233	
솔고바이오	552 삼지전자	-230	
CMG제약	524 파워로직스	-218	
AP시스템	478 유진로봇	-206	
케이사인	405 SBI인베스트먼트	-198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31(화)	2/1(수)	2/2(목)	2/3(금)	2/6(월)
외국인	1,591.8	-47.7	-349.5	-301.8	-12.3	70.7	-108.7	2.5
기관계	-2,085.3	-120.9	-2.7	118.2	55.1	-178.5	-59.7	62.2
(투신)	-983.7	-94.0	-72.5	21.4	-41.7	-2.6	-50.5	0.9
(연기금)	-209.6	-60.5	-23.3	37.2	37.0	-27.9	-86.9	17.2
(은행)	-27.7	7.8	9.9	2.1	2.9	6.5	-4.8	3.1
(보험)	-96.6	0.5	-5.9	-6.4	10.0	-25.0	17.3	-1.7
개인	-12.2	-27.5	104.7	132.3	-87.1	61.2	110.9	-112.5
기타	505.8	196.2	247.5	51.4	44.3	46.5	57.5	47.8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1/26(목)	1/31(화)	2/1(수)	2/2(목)	2/3(금)
KOSPI	1,961.3	2,026.5	2,071.0	2,083.6	2,067.6	2,080.5	2,071.0	2,073.2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2,690.9	21,250.3	21,923.6	22,195.7	22,690.9	21,365.0
(증감액)	6,853.1	58.8	-22,754.4	-503.1	673.3	272.1	495.2	-1,325.9
(회전율)	28.8	24.8	39.4	33.4	32.3	31.8	39.4	38.0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17,574.7	-495.7	845.9	42.0	660.8	-1,434.5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3,065.9	3,057.2	3,071.7	3,049.8	3,065.9	3,067.4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040.1	4,071.6	4,057.5	4,045.5	4,040.1	4,042.1
미수금	151.0	125.6	113.2	111.5	115.8	97.6	113.2	111.7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26(목)	1/31(화)	2/1(수)	2/2(목)	2/3(금)
전체 주식형	72,095	-1,866	-204	-5	-94	-10	-50	-144
(ex.ETF)		-1,463	-152	-38	-30	-9	-69	-75
국내주식형	54,503	-1,629	-183	0	-93	-6	-43	-133
(ex.ETF)		-1,228	-131	-33	-28	-5	-62	-64
해외주식형	17,591	-237	-21	-5	-1	-4	-7	-11
(ex.ETF)		-235	-21	-5	-1	-4	-7	-11
주식혼합형	7,957	-112	22	-3	6	-1	5	18
채권혼합형	25,777	-742	-187	8	-58	-38	-27	-122
채권형	104,730	758	45	30	41	118	-89	16
MMF	127,059	22,639	11,784	71	-2,413	5,768	1,503	4,51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31(화)	2/1(수)	2/2(목)	2/3(금)	2/6(월)
한국	1,328	-42	-304	-262	-11	62	-96	2
대만	1,309	-151	-151	-	-	19	-170	-
인도	111	118	184	67	11	107	-	-
인도네시아	-13	61	31	-30	27	8	26	-
태국	99	-80	-114	-35	-60	1	-21	-
남아공	-1,235	-237	-411	-174	-108	-170	41	-
필리핀	-9	-15	-18	-3	-11	-5	1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6년말	1/31(화)	2/1(수)	2/2(목)	2/3(금)	2/6(월)
회사채 (AA-)	2.14	2.14	2.15	2.14	2.15	2.13
회사채 (BBB-)	8.27	8.34	8.35	8.34	8.35	8.33
국고채 (3년)	1.64	1.68	1.69	1.67	1.69	1.66
국고채 (5년)	1.80	1.85	1.87	1.86	1.88	1.86
국고채 (10년)	2.08	2.16	2.17	2.16	2.18	2.16
미 국채 (10년)	2.56	2.45	2.47	2.47	2.46	-
일 국채 (10년)	0.06	0.09	0.09	0.12	0.10	-
원/달러	1,210.50	1,162.10	1,158.10	1,146.80	1,147.6	1,137.90
원/100엔	1,030.04	1,030.50	1,019.10	1,021.19	1,014.86	1,009.04
엔/달러	117.52	112.77	113.64	112.30	113.08	112.77
달러/유로	1.05	1.08	1.08	1.08	1.08	1.08
DDR3 1Gb (1333MHz)	1.15	1.18	1.18	1.18	1.18	-
DDR3 2Gb (1333MHz)	1.50	1.70	1.70	1.70	1.71	-
NAND Flash 16Gb (MLC)	1.87	1.84	1.84	1.86	1.87	-
CRB 지수	193.97	193.34	195.66	194.84	194.53	-
LME 지수	2,663.2	2,856.4	2,849.0	2,836.5	2,800.2	-
BDI	961	800	786	770	752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2.81	53.88	53.54	53.83	-
금 (달러/온스)	1,131.35	1,212.80	1,203.65	1,221.95	1,215.2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0	31	1	2	3
美> 12월 개인소득 (0.3%, n/a, 0.0%) 12월 개인소비지수 (0.5%, 0.5%, 0.5%) 유럽> 1월 소비자대지수 (-4.9, -4.9, -4.9)	美> 1월 소비자 신뢰지수 (n/a, 112.8, 113.7) 1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n/a, 55.0, 54.6) 日> 12월 실업률 (3.1%, 3.1%, 3.1%) 12월 광공업생산 MoM (0.5%, 0.3%, 1.5%) 유럽> 4Q GDP SA YoY (1.8%, 1.7%, 1.7%) 1월 근원 CPI YoY (0.9%, 0.9%, 0.9%)	韓> 1월 수출 YoY (11.2%, 9.0%, 6.4%) 美> FOMC 금리 결정 (0.75%, 0.75%, 0.75%) 1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55.0, 55.1, 55.1) 1월 ISM 제조업지수 (56.0, 55.0, 54.7) 中> 1월 제조업 PMI (51.3, 51.2, 51.4) 日> 1월 닛케이 일본 PMI 제조업 (52.7, n/a, 52.8)	韓> 1월 CPI YoY (2.0%, 1.5%, 1.3%)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6, 250, 259) 실적발표> 韓 아모레퍼시픽, LG유플러스, 롯데케미칼, S-Oil 美 페이스북, 코코노필립스,	美> 1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227, 180, 156) 1월 실업률 (4.8%, 4.7%, 4.7%) 12월 제조업수주 (1.3%, 0.5%, -2.4%) 中> 1월 차이신 PMI 제조업 (51.0, 51.8, 51.9)
6	7	8	9	10
실적발표> 韓 한국전력, CJ 오쇼핑 美 시스코, 타이슨 푸드	美> 12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5.0, -45.2) 中> 12월 차이신 PMI 서비스업 (n/a, n/a, 53.4) 실적발표> 韓 엔씨소프트, 파라다이스 美 GM, 뉴즈코프, 갈리어드 사이언스, 월트 디즈니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3.2%) 日> 1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1183.3, 1415.5) 실적발표> 韓 우리은행, CJ E&M 美 타이워너, 휴마나	韓> 읍선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246) 12월 도매재고 MoM (n/a, 1.0%, 1.0%) 日> 12월 핵심기계수주 전월비 (n/a, 3.0%, -5.1%) 실적발표> 韓 KB금융, 풍산, CJ CGV 美 Yum, 엑스피디아, 비아콤	美> 2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97.8, 98.5) 中> 1월 수출 YoY (n/a, 3.0%, -6.1%) 日> 1월 PPI YoY (n/a, 0.0%, -1.2%) 12월 3차 산업 지수 MoM (n/a, -0.2%, 0.2%)
13	14	15	16	17
日> 4Q GDP SA 전기대비 (n/a, 0.3%, 0.3%) 4Q GDP 연간화 SA 전분기대비 (n/a, 1.1%, 1.3%)	美> 1월 PPI 최종수요 (n/a, 0.3%, 0.3%) 中> 1월 CPI YoY (n/a, 2.4%, 2.1%) 1월 PPI YoY (n/a, 6.9%, 5.5%) 日> 12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5%) 유럽> 2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23.2) 4Q GDP SA YoY (n/a, n/a, 1.8%) 실적발표> 韓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美 T-Mobile, AIG	韓> 1월 실업률 SA (n/a, n/a, 3.4%)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1월 CPI MoM (n/a, 0.3%, 0.3%) 1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2%, 0.6%) 1월 광공업생산 MoM (n/a, 0.1%, 0.8%) 실적발표> 韓 삼성화재, 코웨이, KTH 美 크래프트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1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226, 1226) 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n/a, n/a, 23.6) 실적발표> 韓 강원랜드 美 시스코	실적발표> 韓 삼성생명, 한전KPS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